Artistic Autumn in Beijing #2

ABROAD

2011 / 10 / 03

주미정

청년작가 100인전
2011. 9. 22 ~ 28 디탄공원 내 팡저탄 별관



팡저탄 별관 전시 전경

798에서 조금 떨어진 곳, 매년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디탄공원(-Ditan Park)에서 문화축제가 열렸다. 넓은 디탄공원 부지에는 조명을 이용한 설치 작품들이 선보였고, 9월 22일 팡저탄(-Fangze tan) 별관에서는 <청년작가100인 전>이 개막했다. ART NOVA에서 기획하여 펑 보이(Feng Boyi), 짜오 리(Zhao Li), 저우 춘야(Zhou Chunya) 등 11인의 평론가 작가 큐레이터 등이 추천한 유망주들의 작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었다. 전시는 1975년 이후 출생한 작가를 청년작가라 명명하며,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였다. 한국의 아시아프와 흡사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중국 미술의 행보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. 이 전시는 순회전으로 곧 다른 도시에서 선보일

계획이다. 주최측에서는 앞으로는 해외까지 영역을 넓혀 외국 평론가, 작가들로 구성되는 '외국청년작가100인전'을 기획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.

참여작가 바이동량 (Bai Dongliang), 비헝(Bi Heng), 차오오우(Cao Ou), 천지아오(Chen Jiao), 천진칭(Chen Jin-qing), 천밍치앙(Chen Mingqiang), 천윈(Chen Yun), 츠쥔(-Chi Jun), 다냐오(Da Nao, Big Cat), 딩쑤카이(Ding Sukai), 딩씬(Ding Xin), 푸옌(Fu Yan), 구이양판(Gui Yangfan) 외